

불법 성적 촬영물 보기만 해도 징역 3년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인터넷신문은행법 등 본회의 통과 온라인 성범죄 처벌 확대...KT, 케이뱅크 최대 주주 길 열려

미성년자 성적취 물의를 빚고 있는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성적취물 등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처벌 범위가 확대되고 처벌 수위 역시 높아질 전망이다. 또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신문은행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n번방 방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이 가운데 핵심은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으로, 불법 성적 촬영물 등을 소자·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에 따라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았지만, n번방에서 타인이 만든 성적취물을 공유한 담당자들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은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에 대해서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타인과 공유한 사람은 처벌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현행법은 촬영 주체가 본인일 경우 타인이 이를 유포해도 처벌할 수 없다. n번방 사건처럼 피해자들이 직접 영상을 찍어 보낸 경우에도 처벌이 어려워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 국회는 같은날 본회의에서 인터넷신문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 달 5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부결된 지 55일 만이다.

과 자본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보통신기술(ICT)업이 주력인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인터넷은행의 자본을 기존 보유 한도(4%)를 넘어 34%까지 늘릴 수 있게 허용해줄 때 단서조항 중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된 조항을 축소했다.

이 법안의 통과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에 있는 KT가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최대 주주 요건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달 여야는 개정안에 합의하고 이를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당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반대 토론을 통해 'KT 특혜 논란' 등을 제기해 이달표가 나오면서 부결됐다.

이 밖에도 사설 축구클럽 차량도 안전관리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어린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이른바 '태호·유찬이법' (도로교통법·체육시설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5월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설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로 숨진 초등생 2명의 이름을 딴 법안이다. 당시 사설 축구클럽 차량이 어린이 통학버스에 해당하지 않아 보호자 동승 등 안전조치 의무가 없다는 점이 문제가 제기됐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을 현행 6종에서 18종으로 확대해 사설 축구클럽 등 체육교습업 시설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이들 시설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규정이 적용되도록 했다.

국회는 어린이 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의무화하는 '해인이법' (어린이안전기본법 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 제정안은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자·종사자



지난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의 경우 시설 이용 어린이에게 위급 상태 이상 조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당, 재난지원금 '기부 릴레이'

의원들 "신청 않겠다" 솔선수범... 동참 유도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0일 고소득층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 기부를 유도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기부 활성화 캠페인 등을 진행할 예정은 아니지만,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의 솔선수범을 통해 사실상 드라이브를 걸며 분위기를 조성해 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민주당 인사들 사이에서는 소득 하위 70%에서 전국민으로 지급대상이 확대된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기부 릴레이'가 이어졌다.

4·15 총선 광주 북구갑 조오섭 당선인은 지난 30일 "재난지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 자체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주변에 확산에 더욱 도움이 필요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의원의 페이스북 글에서 "지원

금 기부하면 15%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저와 우리 가족은 모두 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여유있는 분들이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한 자발적 기부운동이 일어나 대한민국에 새로운 감동을 (주기를 바란다)"고 썼다.

백혜련 의원은 "저와 우리 가족은 당연히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야당은 '국민의 자발적 기부에 기대 재정을 운영하라'고 했지만, 코로나 상태에서 보여준 높은 시민의식을 볼 때 생각 이상의 많은 기부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과 곧 합당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과 비례대표 당선인들 사이에서도 기부 동참이 확산할 전망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與 원내대표 후보들 "개헌 필요"

더불어민주당 원내서열을 노리는 김태년·전해철·정성호(기호순) 의원 모두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년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원내대표 출마 선언 후 기자들과 만나 개헌과 관련한 질문에 "언젠가는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개헌 시점에 대해선 "코로나19로 인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기에 지금 당장 개헌 이야기를 해서 정쟁의 도구가 된다거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경계했다.

전해철 의원은 지난 29일 "개헌은 필요하다. 이미 대통령이 제안한 안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선수의 문제가 있다"며 "지금 개헌을 논하는 것은 도움도 안되고, 전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지금은 개헌보다는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이다.

정성호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1987년 개헌 이후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개헌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올해는 코로나19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위기를 극복한 다음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야당과 협력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연합뉴스

'통합당 진로' 공은 새 원내지도부로

8일 원내대표 선출

미래통합당은 지난 30일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문제를 포함해 향후 당 진로와 관련한 결정을 새롭게 선출되는 원내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통합당은 오는 8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심재철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입정문을 통해 "앞으로 당의 진로는 새롭게 선출된 원내대표가 결정할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 새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당선자 총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심 권한대행은 "새 원내지도부 선출 후에는 더 이상의 구태를 반복하지 말고, 선당후사의 자세로 모든 이가 합심해 당을 살리는 일에 매진해달라"며 "이제 저의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말했다. 현재 통합당에서는 김종민 전 총괄선대위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의 출범 여부, 비대위 임기 등을 놓고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전국위 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통합당은 오는 8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통합당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는 6일 상임전국위원회 및 전국위원회를 다시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이 역시 불발됐다. 따라서 새 원내지도부가 꾸려지는 다음 달 8일까지 냉각기를 가진 뒤 비대위 출범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최악 식물국회' 오명 남기고...20대 사실상 마무리

여소야대·다당제 환경, 협치보다 4년 내내 대치전선 선거법 등 육탄전 끝 통과...법안 처리 19대 보다 7.5%P 낮아

국회가 지난 30일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을 처리하면서 20대 국회는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여야는 비쟁점 법안 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를 다음 달 6일 한 차례 더 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굵직한 현안들을 이날 매듭지으며 사실상 이번 국회의 막이 내려가는 모습이다. '일하는 국회' 다짐과 함께 개막한 20대 국회지만, 4년간 공전과

충돌·고성으로 얼룩져 '최악'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다는 평이 나온다.

여당인 새누리당(현 미래통합당·122석)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123석)·국민의당(38석)의 3개 교섭단체로 출범한 20대 국회는 '여소야대' 다당제에 대한 기대감을 잃고 있다. 하지만 여야는 대화보다는 고성을, 악수보다는 반목을 더 많이 보여줬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 처리'라는 역사적 기록을 남겼지만 그로

인해 여야 갈등의 골이 깊어져 그림자 역시 짙었다.

심지어 2018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꼬박 이어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선 '동물국회'가 재연됐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위한 법안들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현 통합당)을 뺀 민주당과 소수정당들이 밀어붙이면서다.

민주당과 소수정당들은 2019년 4월 29일~30일 자정을 넘긴 '육탄전' 끝에 두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웠고, 이 과정에서 '육탄전'이 발생했다.

지난해 9월~10월에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논란으로 여야가 극렬히 대치했다. 특히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이 확산하면서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회로 표현되는 '광장 정치'는 부각되고 '여의도 정치'는 보이지 않았다. 예산안 역시 4년 내리 법정시한을 넘겨 '지각 처리'했다.

법안처리 성적도 저조했다. 국회사무처의 '20대 국회 법률안 처리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34.8%로 19대 동기간(42.3%) 대비 7.5%포인트 낮았다.

제출된 법안 2만4018건 중 8359건만 처리된 것이다. 이날 본회의의 처리 법안과 6일 본회의가 개최될 경우 처리될 법안을 합치면 처리율은 소폭 늘 수 있지만, 19대 최종실적인 43.9%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815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킵니다

알고계시나요?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 고금리 대출을 3%~8.15%로 대환해 드리는 815 대출
- 3~4개월 무이자 기간에 2~4% 이하로 채무 과외 원리금 부담
- 저리대출(저금리)을 위한 저리대출(저금리) 특별(신협) 프로그램
- 65세 이상 조합원(신협)을 위한 특별(신협) 프로그램
- 저금리·소상공인(신협)을 위한 특별(신협) 서비스

평생 어부바 신협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신사기(신용등급 등)를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문의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첨단지점 576-4150
---------------	---------------	---------------	----------------	---------------	---------------